

권혁홍 회장 제20대 상임위원 선임

권혁홍 회장은 정관 제14조(상임위원)에 의거 부회장 등 임원 중에서 파종회장협의회 추천 7명과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추천한 8명을 포함하여 제20대 상임위원 30명을 8월 19일자로 선임했다.

상임위원 구성을 보면, 제19대 상임위원이 14명, 신규 위원이 16명이다. 연령 순으로 보면 1940년대 출생한 위원이 8

명, 1950년대 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960년대 생은 6명이다. 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권종숙 부회장이 유일하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5명, 부산 2명, 안동 3명, 대구 2명, 충북 1명, 대전 1명, 아산 1명, 전남광주 1명, 전주 1명, 경주 1명, 영주 1명, 안산 1명, 고양 2명, 안양 3명, 성남

1명, 남양주 1명, 구리 1명, 의왕 1명, 수원 1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또 한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 대중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제20대 상임위원들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권행완 편집국장

상임위원 <26.8.19>

- ▶대중회 회장 추천 15명
- 권태정(수석부회장/검교공파회장)
- 권오덕(부회장, 전 감사)
- 권성용(부회장/ 전 상임위원)
- 권순배(부회장/아카파 대표)
- 권영길(부회장,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태복(부회장, 전 상임위원)
- 권용식(부회장, 경주종친회장)
- 권순용(이사/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 권오관(총무위원)
- 권철환(부회장, 세계피부미용협회 의장)
- 권혁재(부회장, 전 한국출판제조협회 회장)
- 권정달(부회장/웅도건설 대표)
- 권기혁(이사, 전주종친회 부회장)
- 권우영(부회장, 종파회장)

- 권흥화(부회장/ 전 광주종친회장)
- ▶파종회장협의회 추천 8명
- 권오돈(추밀공파회장,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 권종숙(부회장, 전 상임위원)
- 권태훈(이사, 아산종친회장)
- 권순창(이사)
- 권오상(부회장, 전 상임위원)
- 권순호(총무위원, 추밀공파 매현공고문)
- 권선출(이사, 성균관 감사)
- 권정길(부회장, 전 상임위원)

-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추천 7명
- 권태호(충북종친회장,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 권영복(부회장, 서울지역종친회장)
- 권영현(부회장, 부산종친회장)
- 권용기(부회장, 대전종친회장)
- 권중수(부회장, 영주종친회장)
- 권순보(부회장, 안양종친회장)
- 권은진(부회장, 호장공파회장)

- 부회장
- 권용식(경주종친회장) <26.8.1>
- 권태형(미국 미주종친회 회장) <26.8.19>

- 이사
- 권기혁(전주종친회 부회장) <26.8.1>
- 권태관(추밀공파 매현공 명예회장) <26.8.19>
- 권태순(추밀공파 사평공 중증) <26.8.19>

안동권씨회관 3층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 개소식 가져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는 지금까지 회관 3층을 사무실로 사용 하던 것을 1층으로 이전하여 개소식을 가졌다.

8월 19일 오전 11시 안동권씨회관에서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기호, 권중덕 부의장, 권철환 회장, 권오익 대중회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원로원 사무국장, 원로원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친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주최 측은 개소식을 앞두고 각종 음료수, 떡, 과자, 수박 등 여러 가지 음식물을 준비하였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삼복더위에 사무실 비품 등을 옮기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고 회고 한 후 “앞으로 회관 창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고 방수시설, 승강기 설치, 외관 페인트 칠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주 의장은 “권씨회관을 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종원들은 심심히 반(十匙一飯)으로 협조해 주기 바라며 돈이 많이 거두어지면 종친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축사가 끝나자 권재주 의장, 권기호, 권중덕 부의장, 권철환 회장 등 원로원 임원 6명이 긴 칼로 시루떡을 자르는 절단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회관 3층에 종친회 사무실과 대중회 안동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회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1층에 있던 식당을 내 보내고 내부를 수리해서 종친회와 대중회안동사무소가 나누어 사용토록 한다. 1층 사무실은 60여 평으로 종친회와 대중회안동사무소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사용한다.

그동안 3층 사무실에 어르신들이 방문

할 때 승강기가 없어서 3층까지 걸어서 오르내리자면 건강상 애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1층으로 옮겼다. 1층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검은색 목판에 “權氏門中會館 (권씨문중회관)”이라고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써서 걸여놓았다.

보수공사가 끝나면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3층은 임대할 계획이다.

권영권 보도부장

2026년 안동권씨능우회 8월 격월 회의 개최

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갑) 주최 “2026년 능우회 8월 격월 회의”가 8월 11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옥동 985-4에 자리 잡고 있는 ‘류의자능이바섯백숙식당’에서 능우회원 정원 35명 가운데 20명이 참석, 개최하였다.

안동지방은 한 동안 35도의 폭염과 열대야로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지난 10일부터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폭염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아침저녁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다.

이날 회의는 권중익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했는데 권오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마우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갑 회장은 최근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가 안동권씨종친회관이 40여년 전에 지은 건물로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종친 행사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물수리 협찬



금 모금운동에 능우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차후 임시총회를 열어 협찬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동권씨종친회관의 전체 보수 및 승강기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오익 대중회안동사무국장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 안동종친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는다고 보고

했다. 지금까지 3층에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회관을 방문할 때 건강상 등 큰 불편을 겪어서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1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면 불편한 점이 다소 없어지게 된다.

권오익 국장의 보고가 끝나자 저녁 식사로 토종능이오리백숙을 먹으면서 정답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권영권 보도부장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 무가사 음악이 건네는 것 -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아공파)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녁에 같은 음악을 다시 들어도 느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내가 들었던 음악이지만, 저녁에는 수많은 일을 겪고 돌아오는 하루를 살아낸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고, 어떤 날에는 치유가 되며, 혼자 있는 순간에는 말없이 곁을 지켜 주는 벗이 됩니다. 음악은 그 대로인데 듣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하루에서

저마다의 인생에서 '지금' 이 가장 소중합니다. 대음희성(大音希聲), 큰 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처럼, 진짜 음악은 크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하루보다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이 더 깊게 남습니다.

신중년에는 속도보다 내 삶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리듬 속에 무가사 음악을 두어도 좋습니다.

악이망우(樂以忘憂), 음악을 즐기며 근심을 잊는다는 공자의 말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기찬가가 되고, 아쉬움이 남은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는 것. 그것이 무가사 음악이 신중년에 건네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아침에는 잠든 마음을 깨우는 음악을 듣습니다. 일할 때는 집중을 돕는 음악이 배경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산책에서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운전하며 귀가할 때는 오늘도 참 잘 살았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음악입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편안히 내려놓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음악으로 마무리합니다.

음악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내 삶의 속도로 돌아오게 해 줍니다.

맺음말 - 내 삶이 곧 노랫말이 된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가 하나씩 쌓여 만들어집니다. 무가사 음악을 들으며 잠시 나를 돌아보아도 좋습니다. 추억을 엮어도 좋고, 오늘의 마음을 엮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선물에 엮어도 좋습니다.

40대라면 바쁜 하루라도 잠시 무가사 음악과 함께 멈추어 보십시오. 5060 신중년이라면 살아온 시간을 무가사 선물 위에 엮어 보십시오.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이 곧 무가사 선물 위 노랫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 여정은 무가사 음악에 노랫말로 엮히는 순간, 소중한 내 인생곡이 됩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2026년 안동종친회 중복 맞아 원로원들에게 삼계탕 대접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는 중복(中伏)을 맞아 안동원로원 회원들에게 점심으로 삼계탕(蔘雞湯)을 대접하였다.

안동종친회는 중복 이틀이 지난 7월 27일 낮 12시 안동시 옥동3길 40(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봉삼계탕’에서 원로원 회원 3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권주연 고문, 권중덕 부의장,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기원 사무국장, 권오익 대중회안동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동종친회는 해마다 복날을 전후해서 원로원 회원을 초청,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임버릇처럼 “문중에 나이 많은 원로원님들이 계시어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서고 안동권문으로서 자부심이 난다”며 원로원님들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이 자리에서 권재주 원로원 의장과 권철환 종친회장 공동명의

로 인쇄된 협조공문을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공문 내용은 안동권씨 종친회관은 선조님의 숭고한 정신과 문종의 화합을 상징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오랜 세월동안 종친의 정성과 노력으로 유지 관리되고 왔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종친 행사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종친회는 공사비 마련을

위한 건물수리 협찬금 모금을 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원 이상이며 공사내용은 회관의 방수 및 창호 교체, 승강기 설치 등이다. 협찬하신 종친들에게 회관 내부에 기재하여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떡 한 봉지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권 보도부장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잡저기설류기사색인 대중화 기증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8월 11일 대중회에 고전자료총서인 잡저기설류기사색인(雜著記說類記事索引) 한 권을 기증했다. 이 책은 권중달 교수의 은사인 윤남환 교수가 시작을 했으나 책을 집필하다 별세했다. 윤남환 교수는 1977년 자서에서 “공편자인 권중달군은 그 오랫동안 걸쳐서 편자의 시달림을 달게 받아 주었고 용케 이겨내 주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권중달 교수는 1982년 후기에 “이때에 기본카드인 체류카드는 10만매(100만 항목) 목표에 7만 4천 매가 완성되었고, 그에 對한 교정작업은 3만 7천 매를 남겨두고 있었다. 또 계획된 10책 중에 제4책에 해당되는 본 ‘잡저기설류기사색인雜著記

說類記事索引’은 종람부분(綜覽部分) 800면이 타자조판으로 완료되어 이의 색인작업을 남겨놓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자인 권중달 교수는 이 방대한 작업을 이어받아 완성했다. 이 책은 역대 한국인에 의하여 저술된 문집을 총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문집에 소재(所載)된 편목(篇目)과 기사명(記事名)의 소재를 종합할 수 있도록 색인으로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약 6,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현존문집과 그 안에 실린 약 100만 항의 편목(篇目)과 기사명(記事名)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호체계 아래 정리하고 분류한 다음, 이를 유별(類別)로 색인화(索引化)한 것이다. 무려 2,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거작이다. 1982년 9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에서 발간했다.

이 책에는 안동권문의 현조(賢祖)들의 저작도 상당수 등재되어 있다. 양촌 권근의 양촌집(陽村集), 병곡 권구(權榘)의 병곡집(屏谷集), 용만 권기(權紀)의 용만문집(龍巖文集), 만회 권득기(權得己)의 만회집(晩晦集), 충재 권벌(權轅)의 충재집(沖齋集), 수암 권상하(權尙夏)의 한수재문집(寒水齋文集), 권순명(權純命)의 양재집(陽齋集), 권주(權柱)의 화산유고(花山逸稿), 권진(權軫)의 경재일집(敬齋逸集), 권호문(權好文)의 송암문집(松巖文集), 권희인(權希仁)의 삼암유집(參岩遺集) 등이다.

권행완 편집국장